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eer Interaction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우수정¹

Su Jung 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eer interaction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The data of 953 49~55 month old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of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influence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Second, parenting behavior had a direct influence on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Third,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Fourth,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¹ 제1저자(교신저자)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sjwoo@uu.ac.kr)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Peer Interacti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 서론

최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아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유아 자신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 속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는 문제행동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Gilliom & Shaw, 2004),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 연령이 증가한다 해도 문제행동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유아기 초기의 조기 개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이러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후의 사회적 부적응 및 학교부적응과도 연관되어지며(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Preddy & Fite, 2012;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Kupersmidt & Coie, 1990)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이다. 따라서 이순자와 유수옥(2012)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박혜미, 2010; Bulkley & Chao, 2003;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특히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던 유아일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의 정도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위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Pleck, 2010).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비해 시간적 양과 참여빈도에 있어서는 부족할지라도 보다 높은 강도의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Parke, 2002; Parke & Buriel,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점차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어머니 못지않게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문자와 김문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다음으로 유아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의 관계이다. 유아기 초기의 유아는 또래와의 우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점차 또래관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가하게 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연령이 하향화되고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역시 늘어남에 따라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사회화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이 때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또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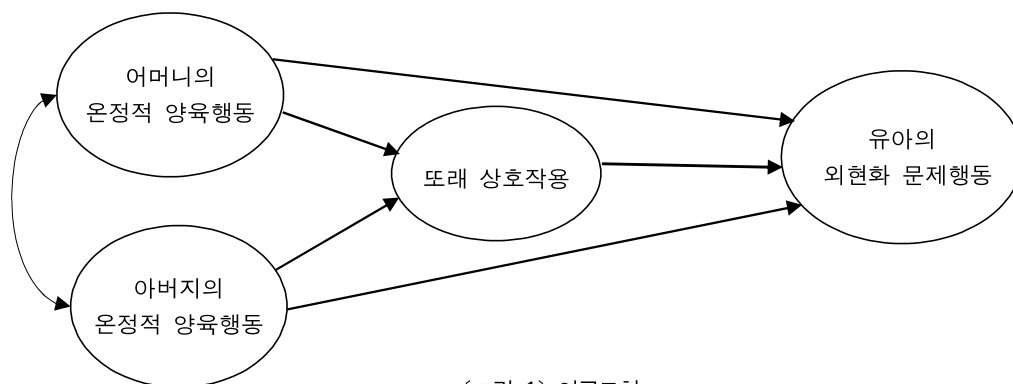
이어질 수 있기에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Vandell & Hembree, 1994)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강병재(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었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Fantuzzo & McWayne, 2002). 이처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기에 이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면 유아는 이후의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장영애, 이영자, 2009)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가 형성하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권연희, 2003; 박주희, 이은혜, 2001; 양은호, 최혜순, 2013)을 통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oungblade & Belsky, 1992), 강나현(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버지가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관계가 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살펴보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들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5차 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난 9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49~55개월의 남아 496명(52.0%), 여아 457명(48.0%)으로 총 953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아버지 연령은 30대(72.7%)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40대(25.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30대(84.4%)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40대(9.6%)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41.3%), 고졸(27.8%), 전문대졸(20.4%)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36.9%), 고졸(29.9%), 전문대졸(28.1%) 순이었다. 아버지의 94.1%, 어머니의 43.5%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월 평균 445만원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5차 년도에서 사용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도구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수정한 유아행동평가척도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동평가척도 가운데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을 하위변인으로 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5문항)와 공격행동(19문항)의 하위변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으로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주의집중문제는 .53, 공격행동은 .87이었다.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임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86이었다.

3)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로 Fantuzzo et al.(1995)의 또래 상호작용검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의 검사문항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등의 9개 문항, 놀이방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등의 13개 문항, 놀이단절은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의를 배회한다’ 등의 8개 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놀이방해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이 나오기 쉬우며, 놀이단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77, .85, .81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전체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 확인을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χ^2 대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인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Brown과 Cudeck(1993)에 따르면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일 때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5점 척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문항평균점수가 어머니는 3.67점($SD = .53$), 아버지의 경우 3.54점($SD = .57$)으로 대체적으로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놀이상호작용은 문항평균점수가 4점 척도 기준으로 3.11점($SD = .39$)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은 2.04점($SD = .46$), 1.55점($SD = .45$)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문제행동 점수를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공격행동이 53.58점, 주의집중 문제가 53.18점으로 60T 점보다 낮게 나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2, 첨도<4(Hong, Malik, & Lee, 2003)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N = 953$)

변인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Skewness)	첨도 (Kurtosis)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3.67	.53	-.05	.14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3.54	.57	-.10	.28
또래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3.11	.39	-.68	1.42
놀이방해	2.04	.46	.33	-.33
놀이단절	1.55	.45	.80	.19
외현화 문제행동				
공격행동	53.58	5.44	1.59	1.94
주의집중문제	53.18	4.53	1.34	1.10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r = .068, p < .05$)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놀이방해($r = -.066, p < .05$), 놀이단절($r = -.073, p < .05$)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r = .065, p < .05$)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놀이방해($r = -.094,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놀이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감소함을 나타낸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253,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86, p < .001$)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47,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46, p < .001$)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및 주의집중문제 모두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상호작용과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13, p < .001$), 주의집중문제($r = -.077, p < .05$)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방해와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157, p < .001$), 주의집중문제($r = .121, p < .001$)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단절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 = .079, p < .05$), 주의집중문제($r = .072, p < .05$)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행동과 주의집중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가운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행동과 주의집중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953$)

구분		1	2	3	4	5	6	7
부모의 양육행동	1. 온정적 양육행동(모)	1						
	2. 온정적 양육행동(부)	.259**	1					
또래 상호작용	3. 놀이상호작용	.068*	.065*	1				
	4. 놀이방해	-.066*	-.094**	-.409**	1			
	5. 놀이단절	-.073*	-.061	-.512**	.434**	1		
외현화 문제행동	6. 공격행동	-.253**	-.147**	-.113**	.157**	.079*	1	
	7. 주의집중문제	-.186**	-.146**	-.077*	.121**	.072*	.468**	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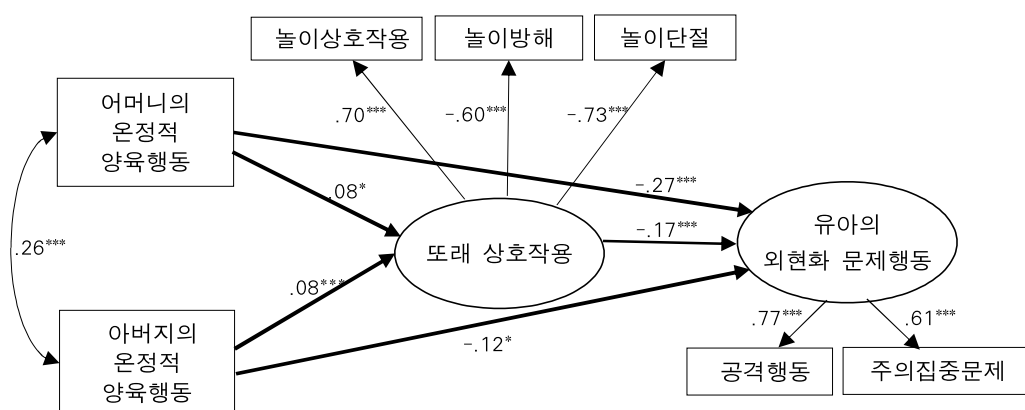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분석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170	10	1.317	.993	.997	.018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 $TLI = .993$, $CFI = .997$, $RMSEA = .018$ (90% 신뢰구간 .000~.042)로서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나타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 상호작용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된 직접경로 계수들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7$, $p < .001$, $\beta = -.12$, $p < .05$).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 및 주의집중문제로 대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08$, $p < .05$, $\beta = .08$, $p < .001$).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17$, $p < .001$). 이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유아의 공격행동 및 주의집중이 어려운 외현화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1$ 이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각각 $.02(p < .05)$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어서 총 효과가 $-.28$ 로 나타나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 상호작용	$.08^*$	-	$.0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 상호작용	$.08^{***}$	-	$.08^{***}$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27^{***}$	$-.01^*$	$-.28^{***}$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12^*$	$-.01^*$	$-.13^*$
또래 상호작용 → 외현화 문제행동	$-.17^{***}$	-	$-.17^{***}$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는 공격성 및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낼수록 유아가 공격적 행동 및 주의집중 문제를 더 보이는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강지현, 오경자, 2011; 이찬숙, 현은자, 2008; Patrick et al., 2005)와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혜경, 박성연, 2002)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과 적절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모범을 보이면서도 온정적으로 양육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부모가 함께 양육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가 최초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의 대인관계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또래관계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아우르는 양육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온정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재숙, 백경임, 2002; 정미경, 2002; Mize & Pettit, 1997, 2010; Wood, Emmerson, & Cowan, 2004),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속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유아는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같은 크기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만큼이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수록 유아는 공격행동을 덜 보이고 주의집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을 감소시킨 강병재(2010)의 연구결과 및 부적절한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의 경우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는 연구결과(최혜영, 신혜영, 2008; Fantuzzo & McWayne, 2002)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들 간의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기술과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또래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또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 이처럼 또래 간의 상호작용하는 기술의 증가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이를 바람직하게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인관계인 부모와 함께 유아기 유아에게 점차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래와의 관계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Patterson, Dishion 그리고 Yoerger(2000)의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에도 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각각 직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보다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강조하고 중요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관련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비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아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보다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데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의 긍정적 측면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의 특성을 비롯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흔하게 외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공격성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추후연구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유아들의 문제행동 가운데

하나인 내재화 문제행동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변인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져 오던 연구들과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를 비롯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연구를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을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나현 (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재 (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93-110.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박금주 (2013).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19.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오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 성별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혜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8), 87-98.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휴노컨설팅.
-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안정성: 1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617-627.
- 양은호, 최혜순 (201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3), 143-162.

- 이순자, 유수옥 (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변인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6), 127-157.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 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 장영애, 이영자 (2009).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장재숙, 백경임 (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0.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lkley, J., & Chao, R. (2003). *Adolescent perceptions of how parents should behave: Consequences for academic,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ntuzzo, J., & McWayne, C.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play interactions in the family context and dimensions of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1), 79-87.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2), 312-323.
- Mize, J., & Pettit, G. S. (2010). The mother-child playgroup as socialisation context: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of mother-child-peer relationship dynam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0), 1271-1284.
- Parke, R. D. (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Being and becoming a parent* (pp.27-73). Mahwah, NJ: Erlbaum.
- Parke, R. D., & Buriel, R. (200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W. Damon & R. M. Lerner (Eds.),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 advanced course*. NJ: John Wiley & Sons.
- Patterson, G. R., Dishion, T. J., & Yoerger, K. (2000). Adolescent growth in new forms of problem behavior: Macro-and micro-peer dynamics. *Prevention Science, 1*(1), 3-13.
- Patrick, M. R., Snyder, J., Schrepferman, L. M., & Snyder, J. (2005). The joint contribution of early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and tracking, and early child conduct problems on monitoring in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6*(5), 999-1014.
- Pleck, J. (2010). Paternal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58-93). Hoboken, NJ: Wiley.
- Preddy, T. M., & Fite, P. J. (2012).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and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2), 182-190.
- Rose-Krasnor, L., Rubin, K. H., Booth, C. L., & Coplan, R. (1996). The relation of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09-325.
- Tomblin, J. B., Zhang, X., Buckwalter, P., & Catts, H. (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73-482.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61-477.

Wood, J. J., Emmerson, N. A., & Cowan, P. A. (2004). Is early attachment security carried forward into relationships with preschool pe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2), 245-253.

Yuongblade, L. M., & Belsky, J. (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olds' close friend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700-713.

논문투고: 15.12.15

수정원고접수: 16.02.28

최종게재결정: 16.03.28